‘마음먹기’에 체하면 약도 없다

(에스더 7:1~10)

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먹기'에 체하면 약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먹기'에 체하면 약도 없다

“마음을 먹는다.”라는 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라고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내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말은 내 마음이 수세에 몰리던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계기가 생겼을 때에 사용됩니다. 주어지는 대로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생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시인 이채의 “삶이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라는 시가 있는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신의 뜻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렸습니다.

정말 삶이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까?
우리는 흔히 “십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체증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하는 것은 곧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체증은 곧 마음먹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시에 나온 대로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마음먹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복 기쁨 만족 평강 대신에 염려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불안 등이 생기는 것이 마음의 체증입니다. 마음을 먹다가 체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생각을 할 때에 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를 할 때에 평생 체증에 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체증에는 약이 없습니다.
“물마시다 체하면 약이 없다”라고 하듯이 마음먹다가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한 시의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 신의 뜻일지 몰라도 /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 우리 자신의 뜻입니다’라는 구절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은 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만 삶의 체증이 사라지고 삶은 통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참 형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먹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은 내 것이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결

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결심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 내가 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에 이렇게 체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먹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기에 체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먹기에 체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반면에 에스더와 에스더가 등에 업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언급만 되었던 유대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던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연회가 시작됩니다. 왕과 하만이 초대되었는데, 왕은 다시 한 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다그칩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는 흉계가 나라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사랑하는 왕후와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니 깜짝 놀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극악한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냐고 묻자 에스더는 왕과 함께 연회에 참여하였던 하만을 지목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왕은 잠시 분을 삭이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살기위해 에스더에게 매달립니다. 중동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던 에스더에게 하만이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며 사정하자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분을 삭이고 돌아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며 더욱 분노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위대가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씌워서 끌고나갑니다. 이때에 신하들 중에 하나가 하만의 집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기 위한 나무기둥이 있음을 알리고, 왕은 그 나무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합니다.

본문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든지 멸절의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왕의 마음이 담긴 조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내려진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든지 그 상황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먹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전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재벌 아닌 사람이 없고 대통령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기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하게 되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부터 얼마씩 저축을 해서 5년 뒤에는 큰돈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므로 체증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 판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뿐 결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늘 보던 왕후였지만 금식하고 왕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를 예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기는커녕 왕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므로 왕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 왕후와 그에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흉계가 나라 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하만이 그러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자리에 참석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살아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려는 에스더와 같은 종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등에 업혀서 유대인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은총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에스더와 한 종족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더와 한 종족이었던 유대인들로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의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만이 꾸민 흉계로부터 공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예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대상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는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과 한 종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예뻐하시는 존재는 단 한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지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구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예쁨을 받은 에스더와 같은 위치를 가졌던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인데 모두가 다 죄인이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됩니다. 이 창조의 세계에 살아가는 피조물들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삶의 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에만 탈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체증이 없으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의 세계는 만물이든 사람이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연장선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서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 되지 않고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체함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버는 탓에 괴로운 이유는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겠다는 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행인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학생들 중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자녀가 대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로 인하여 자녀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 마음에는 체증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먹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은 에스더와 한 종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있는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돈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종족이 다른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

의 기쁨을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승진함으로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멋지게 지음으로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목회를 잘 해서 교인 숫자를 늘림으로 기뻐하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칠십인 제자를 파송하신 뒤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기쁨의 이유를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유일한 기쁨의 이유로 삼는 것이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이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일이 승천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됨으로서 내가 마음먹고 살던 세상을 하나님 마음을 먹는 세상으로 뒤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십자가 생활화의 목표이자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고 체하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고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 자체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예수님과 한 종족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한 종족이 되어서 받게 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도 날마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